

Part 1. 독서

2014학년도 6월 B형

4p

1 ④ 2 ① 3 ④ 4 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1.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CODE : 포함관계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있다**

〈여휘 보강〉 '어떤 + 도 = 모든'이다. 선지의 표현 '어떤 대상이라도'를 '모든 대상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모든 대상들은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로 이해된다.

(1문단)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 본질은 어떤 대상이든 반드시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대상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

(2문단)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본질주의는 대상의 개념을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대상들은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CODE : 구분하기

- ② (반본질주의에 따르면)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 **본질주의는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2문단)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개체의 본질이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본질주의'의 주장이다.

〈부연 설명〉 반본질주의는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단지 인간이 그 개체를 인식하여 언어 약정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반본질주의는 "개체의 본질은 없으며, 인식 여부에 따라 언어로 약정된다."라고 해야 한다.

CODE : 구분하기

- ③ (반본질주의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1문단)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 = 본질'이다.

〈부연 설명〉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 =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문단)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 반본질주의는 애초에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CODE : 조건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1문단)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 '본질 =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이다.

(2문단) 반(反)본질주의는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반본질주의는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 = 본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본질의 역할인 어떤 대상의 다른 대상과의 구분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다.

CODE : 구분하기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언어 약정으로 정의된다

(2문단) 서로 다른 개체가 동일한 종류로 판단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질주의는 본질이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반본질주의는 본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한다 대답한다.

<부연 설명>

- 1) 본질이 없다.
- 2)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한다. 이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A가 있다고 해보자. 이 A에게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A를 돌본다. 그러면 어머니는 없지만, 할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난이도 중하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2.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3문단)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 ㉠을 ‘P:사람, Q: 사회적 동물이다.’로 나누었을 때,
 ㉡도 Q에 해당하지만, P는 아닌 관계이다.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 ㉠을 ‘P:가위, Q: 자를 수 있는 도구’로 나누었을 때,
 ㉡도 Q에 해당하지만, P는 아닌 관계이다.

	㉠	㉡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 ㉠과 ㉡은 둘은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여휘 보장> 이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추상적이다 = 오감으로 알 수 없다.
 구체적이다 = 오감으로 알 수 있다.

	㉠	㉡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 ㉠을 ‘P:이모, Q: 어머니의 여자 형제’로 나누었을 때,
 ㉡도 Q에 해당하지만, P에도 해당한다.
 ㉠과 P가 동의어 관계이기 때문이다.

	㉠	㉡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 ㉠을 ‘P:고래, Q: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로 나누었을 때,
 ㉡은 P에 해당하지만, Q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이다.

	㉠	㉡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 ㉠을 ‘P:연필, Q: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로 나누었을 때,
 ㉡은 Q의 ‘흑연’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 외의 다른 특별한 관계를 보기는 어렵다.

난이도 상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보기 분석>

- 1. (가)에 따르면, 금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 2. (나)에 따르면, 정의를 만들어도 널리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4문단)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 본질주의는 다양한 대상의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고 계속 시도한다. 본질주의자는 (가)를 보고 숨겨진 본질을 밝히는 시도 과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2문단)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본질주의는 '본질'은 언어적 약정을 하는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본질주의자는 (나)를 보고 본질이 없기 때문에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부연 설명> 'A는 B와 무관하다 = A는 B가 사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2문단)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반본질주의는 '언어 약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3문단)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 '언어 약정 = 언어적으로 상관한다'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언어 약정 = 정의'이다. 따라서 반본질주의자는 (나)를 보고 언어 약정으로 정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볼 것이다.

<부연 설명> 언어를 약정함으로써 정의가 만들어진다. 약정(약속)이므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 마다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볼 것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4문단) (**반본질주의자에 따르면**)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반본질주의는 사물의 본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반본질주의자'가 본질의 '발견'을 논할 수 없다.

<부연 설명>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견될 수 있겠는가?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문단) 서로 다른 개체가 동일한 종류로 판단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글의 문단구조를 통해, 본질주의자나 반본질주의자 모두 동일한 종류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4.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 ~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아야겠어.
-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는 여러번 '그대로' 나왔다. 따라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어휘 보강〉

추상적이다 = 오감으로 알 수 없다.

구체적이다 = 오감으로 알 수 있다.

↳ 본질과 언어약정이라는 것이 모두 추상적인 개념이다.

-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는 '구체화'다. 따라서 사례를 활용해서 앞의 설명을 이해해야 한다.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가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핵심 개념에 대한 각 입장의 관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이라는 지시어가 나왔다. 지시어는 '반복'이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아야겠어.

↳ ㉠는 ‘역접의 Sign’이다. 각 입장의 관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다. 정보 설명 목적의 글이기에, 글쓴이의 의견은 제시되지는 않는다.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 ㉡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이른바’는 앞뒤의 내용이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담화표지이다.

2016학년도 6월 B형

10p

1 ② 2 ② 3 ③ 4 ④

난이도 중하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1. 밑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의의 의미**
- ✓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CODE : 구분하기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의의 의미**

〈어휘 보강〉 의미: 긍정적 의미

(2문단)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고도의 몰입은, 대상에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하다고 본다.

〈어휘 보강〉

1. A에 불과하다 = A는 별 거 아닌데, 겨우 A밖에 안된다.

CODE : 구분하기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1문단)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호접몽 이야기에는 물아일체 사상이 들어가 있다.

(3문단)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물아일체 상황에서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CODE : 상상하기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자아와 세계**

(5문단)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편견을 없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연 설명〉 ‘편견 없는’은 정신이고, ‘눈의 감각’은 육체이다. 장자는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어휘 보강〉

- 1. A를 통해서 B에 도달하다 = A가 수단이고, B가 목적이다.
- 2. 목적은 다시 ‘B를 위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DE : 구분하기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추구**

(3문단)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정적의 상태는 고요한 마음으로, 유지해야 할 상태이다. 따라서 정적 상태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한다.

(4문단)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 이 경지를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성 관계가 달성된 경지로 본다.

〈부연 설명〉 ‘세계 ≡ 타자’ 이다.

CODE : 구분하기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 **상반적**

(2문단)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첫번째 마음의 상태는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다. 둘은 상반된 관계에 있다.

〈어휘 보강〉

1. 상보적: 서로 보완되는
2. 상대적: 서로 비교되는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제가 된다.)
3. 상반적: 서로 반대의 의미인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2.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하겠군.
-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CODE : 구분하기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3문단)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 마음이 불 꺼진 재와 같은 상태가 언급된다.

(4문단)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이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으로서,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CODE : 상상하기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하겠군.

(5문단)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참된 자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편견이 없어야 할 것이다.

CODE : 구분하기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잇는다는 것과 같겠군.

(2문단)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상태가 제시된다.

(4문단)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잇는 것이고

↳ 이는 참된 자아를 잇는 것이다.

CODE : 구분하기

④ 편협한 자아를 잇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4문단)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잇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편협한 자아를 잇어야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5문단)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CODE : 구분하기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3문단)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명경지수를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5문단)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을 잊은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다시 말해 명경지수의 상태였던 것이다.

난이도 중상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3.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주는 바탕이 된다.
-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보기 분석>

- 1.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 2. 순자는 '인간' 자연'으로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 3. 순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 4. 순자는 인간은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 5. 순자는 자연과 합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순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순자는 자연과 합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우고자 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순자는 인간은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순자는 인간은 만물의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자와의 차이점이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4. 문맥상 ㉠ ~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미혹(迷惑)된
- ② ㉡ : 수용(受容)하고
- ③ ㉢ : 탈피(脫皮)하여
- ④ ㉣ : 출현(出現)할
- ⑤ ㉤ : 초월(超越)하여

① ‘미혹(迷惑)되다’

↳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홀리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유의어〉 매혹되다, 현혹되다, 혹하다

② ‘수용(受容)하다’

↳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받아들이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유의어〉 받아들이다, 받다, 섭취하다, 흡수하다

③ ‘탈피(脫皮)하다’

↳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벗어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유의어〉 벗다, 벗기다, 벗어나다, 피하다

④ ‘출현(出現)하다’

↳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이다.’라는 뜻의 단어로서 주로 시각적인 대상에 주로 사용된다. ㉠의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드러나다’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뜻의 ‘발현하다’와 바꿔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어〉 나오다, 나타나다, 발생하다

⑤ ‘초월(超越)하다’

↳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뛰어넘다’와 바꿔 쓸 수 있다.

〈유의어〉 넘어서다, 넘다, 뛰어넘다, 벗어나다

2026학년도 수능

10p

1 ⑤ 2 ① 3 ② 4 ③

난이도 중상 ●●●○

①	②	③	④	⑤
3%	8%	13%	20%	56%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③ 스트로손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④ 스트로손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CODE : 구분하기

-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 **보장하지 않는다**

(2문단)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 칸트에 따르면, 자기 의식은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CODE : 상상하기

-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 **독립적이지 않다**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 칸트는 생각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본다. 즉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지 않다.

CODE : 선후 인과관계

- ③ 스트로손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 **인식** → **자기의식**

(5문단) 스트로손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 스트로손에 따르면 ‘경험적 인식’이 추상화되면,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기의식’도 생긴다고 본다. 즉 ‘인식’이 ‘자기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CODE : 구분하기

- ④ 스트로손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 **신체**

(5문단) 스트로손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 스트로손은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6문단) 롱게네스는 (중략)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롱게네스는 자율성을 가져야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율성을 지니기 위해선 살아 있어야 한다.

난이도 상 ●●●

①	②	③	④	⑤
35%	12%	20%	11%	22%

2.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른 점은 어떤 근거는 무엇일까?

<지문 분석>

[A]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른 점은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두 전제를 합쳐본다고 해서,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전제의 경우에는 ‘의식’은 ‘실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전제의 경우에는 ‘의식’은 꼭 ‘무언가가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은 같은 낱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CODE : 구분하기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 첫 번째 전제의 경우에는 ‘의식’은 ‘실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전제의 경우에는 ‘의식’은 꼭 ‘무언가가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은 같은 낱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부연 설명>

‘칸트 이전의 견해’는 두 전제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자기의식(영혼) =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스스로의 동일성의 의식(인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트’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전제에서의 자기의식은 ‘스스로의 동일성’ 더 나아가 ‘스스로’의 실재를 전제하는 반면, 두 번째 전제에서의 자기의식은 단지 동어반복적인 하나의 진술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과는 맛있다.”라는 문장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 있다. “asdgasdg는 asdgasdg이다.” 라는 문장은, 그냥 A는 A다 정도로 개념적 설명을 한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 asdgasdg의 실재성이 생기진 않는다.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 [A]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칸트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 [A]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2문단)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줄 뿐이다

↳ 칸트는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 [A]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른 것은 근거는 무엇일까?

(3문단)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른 것은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근거는 [A]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난이도 상 ●●●●

①	②	③	④	⑤
6%	46%	21%	13%	14%

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①
-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게네스: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④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⑤

CODE : 구분하기

① 칸트 :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5문단)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 칸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CODE : 선후 인과관계

②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자아에 대한 인식
 →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

(5문단)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 된다고 본다. 즉 경험적 인식이 있어야 자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

<여휘 보강> A가 있어야 B가 존재할 수 있다 = B는 A에 의존한다

CODE : 구분하기

③ 롱게네스 :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6문단)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롱게네스는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④ 칸트, 롱게네스 :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6문단)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 칸트와 롱게네스 모두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였다.

CODE : 구분하기

⑤ 칸트: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CODE : 구분하기

스트로슨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5문단) 스트로슨은 (중략)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스트로슨은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수용하고 있다.

〈어휘 보강〉 통시적: 시간의 흐름

CODE : 구분하기

롱게네스 :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6문단)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부연 설명〉

후건 부정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어휘 보강〉

후건 부정의 논리

- 1. A가 없으면 B를 할 수 없다
- 2. B를 할 수 있다.
- 3. 따라서 A가 있다.

난이도 중상 ●●●○

①	②	③	④	⑤
9%	15%	40%	26%	11%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 ③ 칸트 이전까지 유효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보 기>

갑: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 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보기 분석>

1. 둘은 두뇌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 경우를 가정한다.
 2. 갑
 - 갑은 두 경우 모두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며, 지속된다고 본다.
 - 하지만, 두뇌 '의식'일 때는 '신체'가 있고, 프로그램 '의식'일 때는 '신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서는 '인격'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의식'과 '신체' 모두 있어야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부연 설명>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 = 의식이 있다.'이다.

3. 을

- 을은 두뇌 '의식'일 때는 신체가 있고, 프로그램 '의식'일 때는 신체가 없다고 인정한다.
 - 하지만,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에, 동일한 '인격'이라고 본다. 이는 '의식'이 인격의 판단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라고 본 것이다.
- <부연 설명> '사고 기능 = 의식'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①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 없다는**
- ↳ 갑은 두뇌 '의식'일 때는 '신체'가 있고, 프로그램 '의식'일 때는 '신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서는 '인격'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의식'과 '신체' 모두 있어야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옳겠군.

(6문단)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롱게네스 또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신체'라고 본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 ②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 있다는**
- ↳ 을은 '의식'이 인격의 판단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라고 본다. '신체'는 중요하지 않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옳지 않겠군.

(5문단)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다시 말해 신체가 없으면 인격이 없는 것이다.

③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어휘 보강〉 A만으로는 X를 보장하지 않는다 = A말고도 B,C 등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

↳ 갑은 두 경우 모두 ‘생각하는 나’가 존재하며, 지속된다고 본다. 하지만, 두뇌 ‘의식’일 때는 ‘신체’가 있고, 프로그램 ‘의식’일 때는 ‘신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에서는 ‘인격’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의식’과 ‘신체’ 모두 있어야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칸트 이전까지 유향했던 견해에 의하면, 옳지 않겠군.

(1문단)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 칸트 이전에는,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 ‘생각하는 나’만 중요하게 생각했다.

〈Q&A〉

Q. 분명 칸트 이전의 견해에서는 ‘생각하는 나’의 지속뿐만 아니라 ‘단일한 주관’ 조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A. 칸트 이전의 견해에 따르면 ‘생각하는 나’는 당연히 ‘단일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칸트부터 ‘복수의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윤리적 판단이 가능해지고, 자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를 잘 독해해야 한다. 아래의 어휘보강을 잘 기억해두자.

〈어휘 보강〉 ‘A는 B로서’ = A는 무조건 B’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 을은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보았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옳겠군.

→ 옳지 않겠군

(4문단)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성립을 위해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⑤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 프로그램 ‘의식’일 때는 신체가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에, 동일한 ‘인격’이라고 본다. 이는 ‘의식’이 인격의 판단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라고 본 것이다.

〈부연 설명〉 인간과 상이한 존재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다.

CODE : 핵심 정보 파악하기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옳겠군.

→ 옳지 않겠군

(6문단)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중략)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 롱게네스는 살아 있는 신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인격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